

7 천 만 의 좌 우 명 - 우 리 민 족 끼 리

2000년 6월 온 겨레의 통일열망을 활화산처럼 분출시켰던 6.15 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된 때로부터 어언 열네해가 흘렀다.

북남관계를 불신과 대결에서 화해와 협력으로 바꾸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펼친 역사적인 6.15공동선언의 진수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세월은 흐르고 북남관계는 대결의 과거로 되돌아갔지만 우리 민족끼리는 오늘도 통일의 크나큰 원동력이 되어 겨레의 가슴가슴을 쿵쿵 울려주고있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필생의 위업이고 절절한 념원이었다.

그이께서 헤쳐오신 성스러운 혁명령도사의 갈피마다에는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해 바치신 거룩한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지금도 역사적인 6.15북남공동선언이 발표되던 14년전의 그날을 생각하는 겨레의 가슴가슴은 이름할수 없는 격동으로 설레인다.

돌아켜보면 통일을 위해 겨레는 눈물도 많이 흘리고 애국의 후더운 피와 땀도 수없이 바치였다. 그러나 불신과 대결의 두터운 얼음장은 좀처럼 녹을줄 몰랐고 분렬의 역사는 반세기이상이나 흘렀다.

그러던 우리 민족에게 2000년에 마련되고 태어난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6.15공동선언은 자주통일에 대한 큰 희망과 굳은 신심을 안겨주었다.

그때 삼천리강토가 충격과 기쁨으로 들끓었다. 세계가 조선민족에게 박수갈채를 보냈다.

6.15공동선언의 정수는 우리 민족끼리이다.

우리 민족끼리가 얼마나 정당한 통일리념인가 하는것은 6.15이후의 격동적인 사건들이 잘 말해준다. 끊어졌던 국토와 민족의 혈맥이 다시 이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북과 남을 배망하며 《조국통일》, 《우리는 하나다》라는 합성으로 강산을 진감시켰던것은 우리 민족끼리가 안아온 자랑스러운 열매들이었다.

우리 민족끼리는 조선반도에 민족자주의 새 역사를 펼치였다.

원래 우리 민족이 갈라져 살게 된것도 외세때문이었고 통일의 주요방해자도 침략적인 외세이다.

하지만 남조선의 역대 위정자들은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책동에만 매달려 통일의 전도를 어렵게 했다.

북남사이에서 나라의 통일을 외세의 간섭이 없이 자주적으로, 민족대단결을 도모하는 원칙에서 평화적으로 이룩할데 대한 조국공동일궈원칙을 명시한 7.4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에도 당시 남조선집권세력은 《미국은 외세가 아니다.》고 하면서 《대화있는 대결》, 《대화있는 경쟁》을 제창하여 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은 선언이 울려나옴으로써 북남관계는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맞게 되었다.

었다. 당시 남조선의 《경향신문》은 이렇게 썼다.

《6.15남북공동선언의 채택으로 남북은 새 질서를 맞이하게 됐다. 반목과 대립, 대결로 지나온 불행과 과거력사를 떨치고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로 이어지는 디딤돌을 마련했다. 단순히 정상간의 만남을 넘어 통일로 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들에 대한 합의함으로써 《한》반도지도를 바꾸어놓은 측면도 지적된다.》

자주의 기상이 확확 뿜어져나오는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 외세의 간섭을 뛰어넘어 민족문제를 우리 손으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자주적인 북남대화의 새 기원이 마련되게 되었다.

6.15이후 2007년 6월까지 북남사이에는 21차의 상급회담과 40여차의 경제협력추진위원회 회의 및 각 부문별 분과회의와 실무접촉 그리고 10여차의 군사당국자들 사이의 회담 및 실무접촉을 비롯하여 100여차의 회담과 접촉이 진행되고 여기서 광복할만 한 합의들이 도출되었다.

이 나날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존중하고 힘을 합치면 못할 일도 없이 통일로 능히 달성할수 있다는것을 온 겨레에게 확신시켜준 잇줄수 없는 나날들이었다.

우리 민족끼리는 오랜 세월 승미와 공미에 물젖어있던 남쪽사회에 자주의 열풍을 몰아왔다.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후 남쪽의 리심은 북으로 쏠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정치를 따르려는 열망이 사회 각 곳에서 분출하였다.

광주와 부산, 서울의 대학구대들은 북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조국통일3대헌장을 비롯한 아버지이성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자주통일로선과 방안들을 학습하는 학생들로 차넘치고 곳곳마다 《자주의식으로 무장해 외세를 배격하고 북남화해 이룩하여 통일을 앞당기자》는 구호들이 나붙었다.

대학가뿐이 아니었다. 도시와 농촌 등 남조선 각지에서 주민들은 자주정치가 실시되는 북에 대하여, 장군님에 대하여 이야기하



6.15북남공동선언에 서명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 주체89(2000)년 6월

고 애록과 흠모의 심정들을 토로하였다.

2002년 나 어린 두 녀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이고도 《무죄》를 선언한 미국의 만행에 격분하여 온 남녘땅에 타오른 대중적인 반렬사상 처음으로 북남의 당국대표들도 참가하여 당국과 민간모두가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운동에 거죽적으로 떨쳐나섰던 6.15시대의 감동적인 현실의 축소였다.

참으로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 친미와 애국, 굴종과 반통일의 망령으로 어두웠던 남조선에 자주의 해빛이 비쳐들게 되고 온 겨레는 자주통일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대추전장에 넘쳐흘렀었다.

그때만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높이 웨치며 나라가 분렬된 이래 처음으로 북남로동자통일행사와 북남농민통일행사로 열리고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북남녀성통일대회 그리고 북남교육자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북과 남의 계층별단체들의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열려 온 삼천리를 통일의 도가니로 붉게 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오자는것이 어느 통일행사장에서나 울려나온 목소리들이었다.

남조선의 《한겨레》신문이 《6.15북공동선언발표이후 2004년 5월말까지의 기간에 북에서 남쪽을 방문한 인원수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전까지의 10년간에 비해 5배, 같은 기간에 남쪽에서 북쪽을 다녀간 인원

수 5배, 금강산관광객을 빼고 4.5배 늘어났다고 된다.》고 전한것처럼 북남사이에서 사람들의 래왕도 활발히 벌어졌다.

2007년에는 분렬의 장벽을 뚫고 동해선과 서해선에서 렬차시험운행이 진행되었으며 북남의 도로도 이어지고 금강산북로관광도 두가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운동에 거죽적으로 떨쳐나섰던 6.15시대의 감동적인 현실의 축소였다.

겨레모두가 마음과 마음을 합칠 때 통일의 배는 그 어떤 암초도 물거품처럼 깨지며 앞으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다는 밝은 희망이 대추전장에 넘쳐흘렀었다.

그때만이 아니었다. 우리 민족끼리를 높이 웨치며 나라가 분렬된 이래 처음으로 북남로동자통일행사와 북남농민통일행사로 열리고 북남청년학생통일대회, 북남녀성통일대회 그리고 북남교육자대회와 민족작가대회를 비롯한 북과 남의 계층별단체들의 통일행사들이 련이어 열려 온 삼천리를 통일의 도가니로 붉게 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을 앞당겨오자는것이 어느 통일행사장에서나 울려나온 목소리들이었다.

남조선의 《한겨레》신문이 《6.15북공동선언발표이후 2004년 5월말까지의 기간에 북에서 남쪽을 방문한 인원수는 6.15남북공동선언발표이전까지의 10년간에 비해 5배, 같은 기간에 남쪽에서 북쪽을 다녀간 인원

수 5배, 금강산관광객을 빼고 4.5배 늘어났다고 된다.》고 전한것처럼 북남사이에서 사람들의 래왕도 활발히 벌어졌다.

2007년에는 분렬의 장벽을 뚫고 동해선과 서해선에서 렬차시험운행이 진행되었으며 북남의 도로도 이어지고 금강산북로관광도 두가 통일의 주역이 되고 통일운동에 거죽적으로 떨쳐나섰던 6.15시대의 감동적인 현실의 축소였다.

북에서 《미녀옹단》이 왔으며 남녘겨레가 부산, 대구로 달려올 때 평양에서는 북과 남이 《아리랑》공연을 함께 보는 경이적인 현실이 펼쳐져 겨레에게 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었다.

이 모든것은 우리 민족끼리의 장엄한 화폭이었다. 우리 민족끼리가 안아온 통일의 산현장이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나뭇가지 6.15시대에 우리 민족은 분명 통일에 살았고 통일의 환희와 기쁨을 누구나 가슴주머니에 채웠다.

그렇스록 우리 민족끼리의 대명제를 시대에 엮어주시고 이 여섯 글자에 담겨진 심원한 리념으로 자주통일의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김정일장군님의 헌없는 로고와 애국애족의 넋이 어려 거정을 금할수 없게 한다.

우리 민족끼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역센 통일의지이고 뜨거운 통일열정이었으며 거룩한 민족사랑이었다.

2000년 8월 평양을 방문한 남녘 장사치대요단인 장군님을 만나뵈운 자리에서 북의 만화영

가 그이를 《장군》으로 호칭했고 정제, 사회제, 언론제를 비롯한 각계층 인사들이 그이를 만나 뵈오려고 너도나도 평양행에 나서지 않았던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마련하시어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넓은 앞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은 민족의 통일운동사와 부강번영할 통일조국의 력사와 더불어 길이길이 빛나게 될 것이다.

지금 조국통일운동은 우리 민족끼리에 등을 돌려대고 분렬과 대결의 옛시절을 되살리려는 내의반통일세력의 부당한 책동으로 하여 시련과 곡절을 겪고있다.

반통일세력은 우리 민족끼리의 힘으로 활력있게 전진한 6.15통일시대를 《잃어버린 10년》으로, 화해와 단합의 북남관계를 그 누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관계》로 오도하면서 공동선언리행을 전면 부정하고 그 거대한 의의와 생활력을 말살해보려고 비렬하게 움직이고있다.

특히 현 남조선당국은 올해 정초부터 발표된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이 구현된 공화국의 공명정대한 북남관계개선과 발전을 위한 제안들을 성의있게 받아들이고 대대적 무력대고 《위장평화공세》, 《대외선전용》, 《남남갈등유발용》으로 거부하는 한편 장사치들의 총정용, 투전관의 상징인 《대박》이라는 말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비하하고 중상모독하면서 허망한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 《체제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다.

그러나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통일구상과 거룩한 통일업적이 깃들어있고 자주와 민족단합의 활로가 밝혀져있는 우리 민족끼리에 통일이 있다는것을 온 몸으로 체합하고 확신하고있는 온 겨레는 통일원수들의 헛된 발악을 단호히 거부하며 신심드높이 통일아침을 마중해가기 위해 힘차게 투쟁하고있다.

위인은 력사를 창조하고 민족과 시대를 미래에로 향도한다.

오늘 통일으로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진두에는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며 조국통일의 구성이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 서계신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간곡한 통일유훈을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으로 기어이 실현하실 철칙의 의지와 애국애족의 통일방략을 지니신 원수님께서는 분렬의 원한이 서려있는 판문점에 대한 역사적인 시찰을 단행하시였으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앞길도 환히 밝혀주시었다.

올해 신년사에서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개선의 분위기를 마련하여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기 위한 고귀한 지침들을 밝혀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지만 외세를 확고히 견지하여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시었다.

올해의 뜻깊은 신년사와 련이어 발표된 공화국 국방위원회의 중대제안과 공개서한에는 불신과 대결로 엮여진 분렬의 력사를 단호히 끝장내고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의지와 웅대한 도량이 뜨겁게 맥박치고있다.

새해에 들어와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북남사이에서 고위급 접촉이 진행되고 금강산에서 흠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진행되것은 화해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었다.

반통일세력의 대결광풍을 날려 보내며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렬차를 힘차게 몰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에서 겨레는 절세의 애국자의 위인상을 가슴깊게 체합하고있으며 기어이 통일의 대문을 열어제길 애국일념을 더욱 불태우고있다.

우리 민족끼리는 7천만의 좌우명이며 통일의 귀중한 라침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가 있어 자주통일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며 삼천리에 통일축포가 터져오를 감각과 환희의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배영일

이것을수놓는평양상봉의나날의

우 리 민 족 끼 리

주체89(2000)년 6월 14일 평양에서는 북남수뇌분들의 두번째 회담이 진행되었다.

북남공동선언문작성에서 무엇이 핵으로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문제로 논의되고있을 때였다.

남측에서는 군사적통전화설치, 경제공동위원회를 내오는 문제 등 구체적인 안을 담은 문건을 만들자고 제안하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번에 내놓는 공동선언문에서는 구시대적 유

명 답 중 의 명 답

북남공동선언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연회장의 주락맞은켠에 있는 해사전을 가리키시며 남측수행원들에게 저기 전광사진의 노을이 아침노을 같은가, 저녁노을 같은가고 물으시었다.

모두의 눈길이 사진으로 쏠렸다. 거기에는 겨나 한복을 차치하달이한 사진이 걸려있었는데 해무리진 바다가의 정경을 기막히게 선택하여 찍은 예술작품으로서 아침노을인지 저녁노을인지 열렬 분간하기가 어려운 수수께끼같은 장면이었다.

누구도 섣뜻 대답을 못하고있을 때 한 수행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해트는 사진이라고, 민족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해가 떠오르는 장면이라고 대답을

물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2000년대에 우리 민족끼리를 공동의 리념으로 하여 나라의 통일을 민족자주적으로 실현한다고 천명하자는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우리 민족끼리! 6.15북남공동선언의 증핵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이렇게 제시되게 되었다.

통속적이면서도 뜻이 깊고 누구나 접수할수 있는 그이의 말씀에 남조선당국자는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장군님께서 머리를 가볍게 저으시며 저 노을은 아침에 해를 때 들어와 보아도 저 장면이고 저녁에 해질 때 들어와 보아도 저 장면이라고 말씀하시었다.

사물은 보기गत, 생각하기गत이라는 뜻의 그이의 그 말씀에는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गत이라는 의미가 짙게 깔려있었다.

온 겨레가 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마음과 마음들을 합쳐 힘차게 싸워나간다면 우리 민족의 앞길은 해쑤는 아침과 같이 밝을것이라는 깊은 뜻을 한복의 그림을 통해 가장 적중한 표현으로 시사해주는 장군님의 유모아는 명당중의 명당이었다.

본사기자

북과 남, 해외의 우리 겨레가 민족자주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가야 한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우리 겨레에게 통일의 크나큰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민족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놓은 자주통일의 리정표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북남공동선언이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의지를 구현한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선언이기때문이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주체가 되어 실현하여야 할 민족자주위업이며 어느 특정한 계급이나 계층의 힘만으로 실현할수 없는 거죽적위업이다. 따라서 나라의 통일문제는 마땅히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민족의 대단결로 풀어나가야 한다.

북남공동선언에서 밝히고있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철저히 민족자주의 리념, 민족대단결의 리념이다. 이 리념에는 조국통일의 주체는 바로 다름아닌 우리 민족이라는 자각과 통일의 주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 나가려는 만만한 의지, 사상과 제도, 신앙과 정견의 차이를 뛰어넘어 하나의 퍼줄, 하나의 민족으로서 온 겨레가 굳게 손잡고 단결할데 대한 사상이 담겨져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충실할 때

만이 내의반통일세력의 도전과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성과적으로 이룩해나갈수 있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의 길을 밝혀주는 민족공동의 리념인것이다.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은 또한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민족공동의 요구와 리익에 맞게 풀어나갈수 있는 넓은 길을 밝혀주고있다.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있다.

10.4선언은 6.15공동선언의 기본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발전과 조선반도의 평화, 민족의 공동번영과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집대성하고 포괄적으로 밝힌 행동지침이며 실천강령이다.

북남관계를 호상존중과 신뢰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기 위한 문제,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조선반도에서 긴장완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문제,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하여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평과 유무상등의 원칙에서 확

대발전시키는 문제,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발전시키는 문제 등 10.4선언에는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을 위한 제반 문제들이 폭넓게 반영되어있다.

역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이야말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리념적기초와 근본원칙, 실현방도들을 명시한 북남관계발전의 초석이며 자주통일의 리정표인것이다.

조국의 자주통일의 리정표로서 북남공동선언들은 이미 실현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생활력이 뚜렷이 확증되었다.

우리 민족끼리의 통일합성이 온 삼천리를 진감하는 가운데 북과 남사이에는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이 진행되었고 민족공동의 통일행사들이 성대히 진행되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의지를 내외에 힘있게 파시하였다. 군사분계선철조망을 끊어버리며 하늘길, 바다길, 땅길이 열려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민족공동의 통일대화가 도도히 끊이지고 동, 서해선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는것과 같은 사면도 일어나 민족화해와 단합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지금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북남공동선언들의 역사적인 의의와 생활력을 거세말살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보수계당은 《〈한〉반도신평프로세스》요, 《통일대박론》이요, 《드레스덴선언》이요 뭐요 하면서 저들의 비렬한 체제대결, 동족대결야망을 실현해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또한 동족을 말살하고 우리 민족의 삶의 보금자리를 핵침략속에 밀어던지려고 외세와 야합한 북침전쟁연습에 대대리고있다. 현 남조선《정부》에 의해 북남관계는 파괴적으로 줄달음치고있으며 조선반도에는 전쟁의 무거운 구름이 짙게 깔리고있다.

현실은 북남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반통일분렬주의세력의 책동을 짓부시지 않는 한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으며 통일은 더욱 료원해진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고있다.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북에 살건 남에 살건 해외에 살건 북남공동선언고수리행을 위한 투쟁에 한사코같이 떨쳐나서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리정표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철저히 고수, 리행함으로써 북남관계를 명실공히 우리 민족끼리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민족공동의 번영과 통일을 앞당겨와야 할것이다.

김명성